

## 01. 질문하고 대화하는 수업의 기본 원칙과 과정

질문이 있는 교실과 관련 화자가 되고 있는 학습 방법 중 배움의 공동체, 거꾸로 학습, 하브루타 등을 하고 있는데 질문과 관련된 여러 학습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다. 학생과 학생이 묻고 답하는 짝 활동을 기본으로 협동학습을 한다. 전통적으로 질문법은 교사가 해답을 알고 있고, 학생은 보다 깊은 이해를 추구하게 되기보다는 교사에 의해 제시된 해답을 얻게 된다. 초점이 해답을 얻는 것에 맞추어지면 학생들은 과정에 중점을 두지 않게 되고, 그들 자신의 비판적인 사고와 판단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는다. 학생들은 독자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교사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것을 물음도 답도 파트너와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작용을 하면서 알아내게 하는 과정으로 바꾸자는 것이 질문이 있는 교실의 초점이다. 말로 소리 내어 짝에게 질문하고 설명하고 답하기를 모두 학생들끼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는 정보를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의 발견을 촉진하는 사람으로의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서 교사가 강의를 통해 설명하는 교육은 5%에 불과하고,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열심히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10%, 그렇게 강조해온 시청각교육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토론은 50%, 직접 해보는 것은 75%,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90%의 효율을 갖는다. 이것은 친구를 가르치는 것으로 1시간 공부한 사람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려면 읽기는 9시간, 강의는 18시간을 해야 한다. 친구를 가르치는 공부는 강의를 듣는 공부보다 18배의 효율성을 갖는다고 한다.(전성수, 2016) 유대인들이나 핀란드교육이 우리보다 공부를 덜하고도 성공하는 이유는 이런 공부의 효율성 때문이다.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는 교육 방법, 이것을 단순화 하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를 진지하게 주고받으면 질문과 대답이 되고 대화가 된다. 거기서 더 전문화 되면 토론이 되고 더욱 깊어져서 전문화 되면 논쟁이 된다. 이런 유대 방식의 교육법을 적용하면 교사는 조금 가르치고 학생은 많이 배우는 학생의 활동과 과정이 중심이 되는 수업 방법의 원칙과 과정을 들면 다음과 같다.

## &lt;질문하고 대화하는 수업의 기본 원칙과 과정&gt;

첫째, 질문이 핵심이다. 학생에게 지시나 요구, 설명을 하기보다 질문을 많이 한다.

둘째, 학생이 틀린 답을 말해도 정답을 알려주지 말고 다시 질문으로 답한다.

셋째, 질문과 대화를 하기 전에 충분히 내용에 대해 알게 한다.

넷째, 아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한다.

다섯째, 질문은 사고력 신장이 목적이다. 뭔가를 외우고 알게 하는 것보다 학생의 뇌를 자극해 사고력을 높여 안목과 통찰력,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다.

여섯째, 질문하고 대화할 때는 학생에게 집중해서 그 눈을 보고 그 어떤 대답도 막지 않고 수용한다.

일곱째, 학생의 대답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칭찬한다.

여덟째, 학생이 모르는 것은 책을 다시 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스스로 찾아 보게 한다.

아홉째, 많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기 보다는 한 내용을 깊이 있고 길게 하는 것이 좋다.

열 번째, 다소 어려운 내용도 쉬운 용어로 질문하여 학생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좋다.

열한 번째, 모든 일상 속에서 질문과 대화를 하되 일정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한다.

열두 번째, 어린 학생이라도 쟁점을 만들어 토론과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뇌를 계발하는 방법이다.  
열세 번째, 꼭 가르쳐야 하는 원칙이나 가치관은 대화를 통해 분명하게 인지하게 한다.

아론 페리(Aaron Parry)는 「The Talmud」에서 18세기 이탈리아 학자인 랍비 주짜토(Moche Chaim Luzzatto)가 논리적 체계를 따라 탈무드 토론의 7가지 원리적 요소를 설정한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일곱 가지는 진술, 질문, 대답, 반박, 증거, 갈등 해결이다.

가. 진술(statement): 말하는 사람이 사실적으로 이야기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간략하게 언급한다.

나. 질문(question): 진술한 사람의 정보를 듣고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한다.

다. 대답(answer): 진술한 사람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한다.

라. 반박(contradiction): 대답에 대해 반박하거나 반대의견을 낸다.

반박은 싸우는 것 말다툼을 하는 것이다. 날카로운 반박일수록 좋다.

리. 증거(proof): 원래 말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증거를 대고 증명을 한다.

마. 갈등(difficulty): 다시 증거를 낸 것들에 대해 사실이나 진실이 아닌 것들을  
현명하게 찾아내어 지적한다.

바. 해결(resolution): 결론짓기, 파트너와 함께 갈등 상황에 대해 해결책을 찾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면서 마무리 한다.

## 02. 질문과 대화를 위한 단계와 기존의 수업과의 비교

질문과 대화를 활용한 수업을 할 때는 보통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첫째는 도입 하브루타로 뇌를 깨우는 과정으로 재미있는 놀이나 게임, 이야기 등을 통해 뇌에 자극을 주고 워밍업을 하는 단계이다. 둘째는 수업할 내용을 충실하게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으로 정답이 있는 질문들이 주로 이루어진다. 셋째는 상상을 자극하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상상하여 대화 하는 과정이며 넷째는 적용 단계로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직접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한 실천 과정이다. 다섯째는 지금까지 나눈 것을 바탕으로 종합하고 정리하는 단계이며 선생님이 되어 정리해 가르치거나 사고를 확장하는 단계이다.

- 도입(동기) 단계: 여러 가지 게임이나 놀이로 학생들의 뇌를 깨우기
- 내용(사실) 단계: 텍스트를 읽고 사실적 내용 이해하기
- 심화(상상) 단계: 상상을 자극하는 질문을 통해 마음껏 상상하기
- 적용(실천) 단계: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기
- 메타(종합) 단계: 종합하고 정리하거나 선생님이 되어 정리해 가르치기, 또는 사고 확장하기

위의 단계나 과정은 일반 수업에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미 사전 동기 유발, 내용이해, 이해 후 말하고 듣고 종합할 수 있는 활동, 정리하기의 과정을 우리는 이미 모든 수업에서 해 오던 것이다. 다만 진행하는 방식이 교사가 이끌고 주도하면서 매 단계마다 용이주도하게 그리고 매우 구체적이고 잘게 질문하고, 학생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만을 찾아왔다는 점이 크게 다른 부분이며, 이런 수업의 진행 과정에서 많은 양의 활동이나 내용을 담다 보니 학생 자율에 맡겨서는 그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으므로 결국은 교사가 한 시간 수업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을 수밖에 없고, 매 단계를 너무도 충실히 밟고 나가면서 아주 많은 양을, 혹은 많은 활동을 깊이 없이 지나간다는 점이 지금 하고자 하

는 수업의 방향과 가장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교사는 많이 가르치고 학생들은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활동하다 깊게 나의 것으로 체화하지 못하여 내 것이 되지 않는 학습으로 이어져 적게 배우게 된다는 점이다. 더더구나 이와 관련하여 학원에서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을 학습한다는 사실이다.

### 03. 질문이 있는 수업방법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 1.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 가. 목표

초등학교 영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로서 음성 언어를 중심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바탕이 되는 언어 기능교육에 중점을 둔다. 문자 언어교육은 쉽고 간단한 내용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내용으로 하되 음성 언어와 연계하여 내용을 구성한다.

영어과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며, 외국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영어는 다음과 같이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 1) 영어에 대한 흥미와 기초적인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다.
- 2)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3) 영어 학습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관습이나 문화를 이해한다.

##### 나. 내용 체계

##### 1) 언어 기능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4기능을 점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언어 기능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2) 의사소통 활동

- 의사소통 활동은 음성 언어 활동과 문자 언어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2. 초등 영어와 질문이 있는 수업

하브루타는 유대방식의 질문 수업이다. 태교부터 가정생활에서 일상까지를 대화와 질문으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그것도 몇 천년동안의 문화로 이어져 왔다.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가 이런 기본과 상황이 다른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특별한 상황에서 쌓여져 나온 방법을 고립된 정보만으로 우리에게 똑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우리도 태교도 있었고 밥상머리 교육도 있었지만 우리의 부모와 할머니 세대에서 그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주입하면서 효율과 경쟁의 교육에 내몰리다 보니 단절의 과정이 있었고 바탕이 다르게 변화했었다. 따라서 유대인의 교실에서 일어나는 질문과 토론 위주의 수업 방식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과정상에 즉시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우선 가정에서의 교육과 학교에서의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 이해하는 과정에 더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에게 친절한 교과서와 핵심 성취 기준이 있다. 이를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을 가지고 접근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다만 기존에 답습해 오던 교과서 위주의 수업과 달리 교과서 지문의 일부분을 제공하거나 교과서와 관련된 주제의 단서만을 자료로 제공하여 아

이들에게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가지고 아이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해답을 찾아가게 되면, 전 과목을 거의 연구하며 가르쳐야 하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이 교과서는 대단히 효율적이고 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를 가르친다기 보다 이 자료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핵심 성취 기준을 이루는 질문과 대화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우리의 교과서는 매우 훌륭한 자료이며 이를 잘 활용하면 질문과 이야기가 있는 유대인의 학습 방법만큼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 교실 속 질문 수업은 유대인의 하브루타와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꼭 같을 필요도 없다. 우리에게 맞는 질문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짝과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사고를 확장해 가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EFL 환경의 우리나라와 같은 교육 조건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이 있는 수업을 조금 시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어떤 특정 교과와 특정 단원이나 차시만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짝과 학생 상호간에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하는 것은 언제고 가능한 일이므로 어느 과목 어느 차시나 할 수 있다.

### 3. 질문과 짝 대화를 정해진 모형으로?

내가 영어를 하브루타로 한다고 하면 첫 번째 반응이 '어떻게 영어도 가능해요?'였다. 더더구나 이제 알파벳부터 배워야 하는 3 학년을 데리고 한다고 하면 이제 영어를 처음 배우는데 어떻게 영어로 질문을 하냐고 놀라워했다. 영어의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나름 어떻게 할까를 고심한 끝에 나만의 방식으로 여러 시도를 해 본 결과 질문과 대화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지 많았고, 그 결과들은 이전의 것에 비해 정말 다양한 해답과 체화로 나타났다.

물론 영어에서만 고민해야하는 문제는 하나 있다. 학생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을 적은 어휘력과 어구밖에 모르는 학생이 영어로 질문하고 말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그러나 조금만 변형을 주거나 기본 주요 구문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준에 맞게 영어, 한글,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면 얼마든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다. 영어처럼 수준이 다양한 과목도 없을 것이다. 이미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배워온 학생부터 이제 처음 접하는 학생까지 그들의 수준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벌어진다. 이런 수준 차 때문에 아주 상위 레벨이거나 하위 레벨의 학생들은 수업에서 흥미를 잃기 쉽다. 그래도 상위 레벨의 학생에게는 조금 어려운 질문으로 답할 수 있게 한다면 하위 레벨의 학생은 더 큰 부담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수준이 학생이 그것도 다인수로 공존하는 교실 상황에서 짝과의 질문과 대화는 각자의 핵심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하면서, 학생 상호간의 가르침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꼭 어떤 모형의 절차에 따라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자연스런 학생활동 과정에 돌이 묻고 답하는 과정이 들어 있으면 어떤 수업 모형에 꼭 맞지 않더라도 학생 상호간에 질문과 대화로 배움이 일어나고 핵심목표에 도달해 갈 수 있다. 정해진 틀이 아니라도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질문이 있다면 분명 기존의 수업보다 상상 이상의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았다.

내가 만나고 컨설팅을 의뢰를 해 온 많은 선생님들이 질문이 있는 수업 방법을 직접 수업에 적용해 보려고 할 때 느끼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그 중 공통으로 느끼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 ① 질문 만들기의 어려움
- ② 교육과정 재구성의 어려움
- ③ 교과서 밖으로 생각과 내용이 뻗어 나갈 때 핵심 성취 기준을 벗어날 때 평가에 대한 어려움

④ 너무 시끄러움

⑤ 말만 하다가 정말 핵심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면 어쩌나?

⑥ 오개념에 대한 문제

등등이 대부분의 교사가 염려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었다. 수업안을 협의하고 수업 참관 후 학생 및 학급 실태에 따른 사후 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여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Honeymoon period가 중요하다.

모든 수업에는 수업을 위한 기초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 짝과 서로 돕는 기본 협동학습의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고 수업이고 학습 방법이고를 논해야 한다. 즉 우리 반 교실 기반에 대한 조성을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 좋은 학습 방법을 입히려고 해야 하는데 먼저 방법만 생각하고 짝과의 경청이나, 배려, 협동, 둘 사이의 허용적인 분위기, 나와 다르거나 모를 때 둘 사이에 이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등의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뉴얼이 없이 바로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부터 들어가면 시끄럽고 혼란이 가중된다. 따라서 학생을 위한 기초 기본 교육이 가정 먼저이다. 이 활동은 3월 학급을 막 맡게 된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이다. 왜냐하면 이때는 학생들이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관망을 한다. 우리 선생님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는지를 그런 다음 관망한 결과에 따라 학생들이 행동 수준으로 해서는 될 일, 안될 일을 학생 자신이 구분해 놓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때는 놓치면 갈수록 학급 운영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Honeymoon period를 잘 활용해야 한다. 학급을 맡는 순간 무엇을 우선 시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 책 진도 나가는 것보다 우선이다.

둘째, 과거를 해체하고 현재와 통합하는 일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업을 너무 어렵게 접근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 속에는 과거의 정형화된 수업 모형과 현재의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은 질문, 이야기, 학생 중심, 학생 배움을 염두에 둔 활동 이 모두를 담고자 하는 의지 때문인 것 같다. 학생과정 중심의 수업 방식을 질문하고 대화를 위한 수업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정해진 모형에 너무 맞추려고 단계를 밟으면서, 또 현행 유지해 오던 전시 회상, 동기 유발, 활동 1, 활동 2, 활동 3 이런 활동 후 정리의 단계를 밟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내용이나 활동면에서 당연히 무리가 온다. 과정에서 너무 많은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만 질문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느라 텍스트 제시, 문제 만들기, 문제 선정하기, 문제에 답하기, 쉬우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 학생 입장에서조차 어렵고 선생님도 전 과정을 단위 시간 40분에 맞추기가 어렵게 수업안 자체가 디자인 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디자인된 수업의 대부분은 질문은 하지만 결국 선생님이 끌고 가는 기존의 수업형태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 많은 양을 다 소화하려다 보니 학생들이 어디에서 배움이 일어나는지 어디에서 머뭇거리는지에 대한 확인과 또 이 확인에 따른 질문 던지기, 이 질문에 다시 생각하기, 맞춰 보기, 확인하기 등의 활동을 넣으려면 두 배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생략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선생님이 다시 앞을 끌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과정 재구성과 핵심 성취 기준을 놓치면 어쩌나 하는 문제

우리에게는 주어진 교과서와 어느 부분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핵심 성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사용 지도서가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고 따라서 이를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이다.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과서를 융통성 있는 자료로 활용하면 좋다는 말이다. 선생님들이 특히 전 과목을 가르치다시피 하는 초등 선생님들이 따로 많은 시간

을 들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자료를 찾고 제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에서 교과서는 아주 편리하면서 요긴한 자료이다. 이 주어진 자료만으로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창의성과 인성, 지성 모두를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장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사례에서 살펴보겠다.

넷째, 너무 시끄러워서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거나 오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염려  
물론 서로 말하고 질문하는 과정에 다소 소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시끄러움 때문에 더러 방해받는 일도 일어나지만 이로 인해 얻는 것이 더 크다면 소란스러움은 큰 문제는 아니다.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들이 조용히 듣는 수업일 경우도 그 중 일부만 잠시 듣고 나머지는 보고는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거나 틈만 나면 주의를 피해 헛짓거리를 생각하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에 비하면 크게 뒤진 것만도 아닐 것이다. 말은 생각없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설혹 학습 주제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쳐도 이들은 즐거움을 나누거나 어쨌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무것도 안하고 듣는척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뭔가를 주고 받고 있으며 이 속에서 이해 받고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다소 학습과 멀어도 눈감아 줘도 괜찮지 않은가 싶다. 이를 조금의 제제를 가해 돌리거나 다시 학습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관여하기를 되풀이 하면서 또 질문으로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이다. 학습이란 이런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 필요한 것이다. 설혹 주제를 벗어난 장난스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해도 적어도 이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생각을 했고 최소한의 상호 소통을 하고 있다면 계속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질문으로 끈질기게 기다려야 한다. 또한 오개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교사는 이 오개념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학생들이 활동하는 동안에 궤간 순시에서 케치할 것이고 이것을 질문으로 다시 학생들에게 물어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가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나의 제안은

- ①주제는 가급적 간결 명료한 문장이나 그림이나 실물로 주제어를 제시하고
- ②개념 이해 점검을 위한 핵심 어휘와 관련된 질문으로 활동을 하고
- ③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교과서를 활용하기를 권해 왔다.

질문과 이야기와 관련된 연수를 하고 책을 읽고 하신 선생님들도 이런 수업에 대한 시도를 해보는 과정에서 질문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 핵심 성취 목표 도달에 대한 의구심,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대한 어려움 등을 느끼셨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를 해체하기도 하고 통합할 수도 있다. 과거의 지식 위주 강의 위주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기초 기본 지식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강의 방식도 필요하고 다만 이전의 학습이 지식 습득에서 그쳤다면 지금은 이 습득을 기초로 하여 더 고등사고력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다음 단계까지 가자는 것이다.

지난 과거에 시행하였던 방식을 완전히 없던 일로 덮을 교육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주입식, 일제 강의 외우기 이 모든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내용에 따라서 외우거나 쓰거나 들어야 한다. 지식은 중요하다.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그 다음의 적용과 실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가 지식을 많이 쌓아 놓았다면 앞으로는 이를 적절하게 재구성하고 응용하는데 까지 나아가서 상황을 재구성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 미래사회 학생들이 갖춰야 할 공감 능력, 도덕성, 의사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등을 길러 이 힘으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데 까지 더 데리고 가 보자는 방법이 질문과 이야기가 풀어 나갈 숙제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오게 된 지난 과거의 기본위에 새로운 적용과 변형, 재구성, 재해석의 과정을 더하자는 것이 질문과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방법인 것이다.